

만성지구, 혁신동으로 편입된다

전주시, 6월 30일부터 두현·용흥 등 자연마을 포함 만성동 일부지역 편입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속했던 만성지구와 인근 두현·용흥마을이 오는 6월 30일부터는 혁신동으로 편입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만성지구·여의동·혁신동 주민, 유관기관·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제작, 배포, 홍보물 게시 등 시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만성지구 등 혁신동 편입 현황도

만성지구와 두현·용흥 등 인근 자연마을 주민들은 실제 생활권은 혁신동이지만, 행정구역상 여의동에 속해 있어 주민센터 이용 시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은 물론, 학군과 가맹점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만성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만성지구와 두현·용흥 등 자연마을을 포함한 만성동 일부지역을 혁신동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만성지구 등의 혁신동 편입과 발췌 혁신동 주민센터가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인 만큼 내부 리모델링과 제반 절차 이행, 공부정리, 업무 인계인수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청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혁신동 주민센터 개청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만성지구 현장민원실(만성중앙로 54-30, 107호)과 기존 임시 혁신동 주민센터(오공로 43-24)는 오는 6월 30일자로 업무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만성지구를 포함한 혁신동 주민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혁신동 주민센터 신청사(기지로 9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옆)에서 민

원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성지구와 두현, 용흥 등 자연마을의 혁신동 편입으로 그간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남은 기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혁신동 주민센터 개청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공무원 대상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가 미래광역시 대전환과 혁신성장 및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직원들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2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5월 중 청원공간 한마당 행사에서 시청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교육은 언론의 취재요청에 따른 상황별 대응능력 향상과 언론홍보에 대한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변상욱 前 CBS 대기가 강사로 초빙됐다. 변 강사는 이날 '미디어 독해력 강화와 위기대응'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다양한 취재사례를 토대로 언론을 이해하고 친밀감 있게 응대할 수 있는 기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인터뷰 방법 등을 담은 인터뷰 요령에 대해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홍보역량과 언론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홍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황별 대응능력 향상과 언론홍보에 대한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변상욱 前 CBS 대기가 강사로 초빙됐다. 변 강사는 이날 '미디어 독해력 강화와 위기대응'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다양한 취재사례를 토대로 언론을 이해하고 친밀감 있게 응대할 수 있는 기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최근 들어 공무원들의 인터뷰 방법 등을 담은 인터뷰 요령에 대해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홍보역량과 언론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홍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2023년 청원공간 한마당 행사 중 공무원 대상 언론홍보 역량 강화 교육 모습

전주시에너지센터, '에너지 덜 쓰는 우리집' 교육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3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건물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덜 쓰는 우리집' 무료 교육을 운영한다.

이날 첫 교육에는 △건축 용어 및 설비, 건물에너지 진단의 이해 및 사례

△기후위기와 제로에너지 건축과 사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센터는 기존 연간 2회 운영해온 이 교육을 올해부터는 총 5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관련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세분화해 진행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건축 기본 이론 및 진단 △기후위기와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의 이해 및 전복권 사례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만들어보기'와 시민과 관련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단열 및 기밀의 이해와 시공방법 교육 및 실습'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막

세계적 그림책 작가 등 참여 개막식 가져... 6월 4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책의 도시 전주에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를 만나고 다양한 유명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도서전시회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광장에서 열린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막식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광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수지, 막스 뉘코스, 바캉스 프로젝트 작가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출판사 대표, 관계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초청작가인 이수지, 막스 뉘코스,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의 그림책 '여름이 온다', '등대소년', '강통차기'를 활용한 이정훈 마임 예술가의 '그림책과 마임'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개막식 공식행사에 이어 전선영 도슨트(그림책 활동단체 '내마음의 그림책 대표)와 함께 이팝나무홀로 자리를 옮겨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그림책 원화를 함께 관람했다. 이 자리에는 전시의 주인공인 이수지 작가와 막스 뉘코스 작가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4일까지 3주간 전시·강연·공연·체험·북마켓 등 그림책을 만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는 그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이수지, 막스 뉘코스,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의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며, 깊이 있는 전시 관람을 위해 매일 4회에 걸쳐 작품 전시해설 및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강혜진·김은정·김지은 등 신인작가 13명의 원화와 더미북, 드로잉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시작-작가전'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에 △그림책 작가와 출판편집자, 디자이너, 연구가 등의 '강연' △작가가 직접 본인의

그림책으로 공연하는 '그림책 작가 1인 극장' △지역 활동가와 연계한 '그림책 체험 프로그램'도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 지역서점 등 전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림책의 가치에 집중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국내외 그림책 작가와 작품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해 그림책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청년키움식당 전주점' 문 열어

시, 첫마중길 맛집창업교육관서 오픈 기념 현판식 가져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맛집창업교육관에 청년 외식창업가를 육성하는 전용공간이 문을 열었다.

시는 지난 13일 첫마중길 맛집창업교육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성주 국회의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키움식당 전주점' 오픈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청년키움식당'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본금 없이 실제 창업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교육과 메뉴 개발, 컨설팅 벤치마킹 등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시가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청년키움식당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전주점은 전주맛집창업교육관이라는 복합 교육공간에 조성돼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외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실전 창업 경험과 신메뉴 개발, 업종전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쁜 및 실습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전주맛집창업교육관은 △청년키움식당 전주점(1층) △메뉴개발실(배이커리실·카페음료실)·제품제조실·맛창업조리실(2층) △창업세미나실·푸드스타일링실·푸드 콘텐츠 제작실(3층) 등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첫마중길 광장에서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첫마중길 마을관리사 회적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1회 당산문화축제'도 펼쳐졌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국제행사 대비 식품안전 강화 위한 캠페인 전개

전주시는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아 지난 12일 서부신시가지 일원에서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식품위생 안전과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한

식품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는 외식업 종양회 완산구지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시민과 방문객,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음식문

화개선 홍보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식품안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시는 캠페인에서 친절한 손님맞이를 통해 아·태 마스터스 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 참가를 위해 전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각인시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